

오랜 영원한 친구 윤희철 영전에 드림

정정수 (62 년)

너가 떠나기 전에 이상무 권익현 이상복 군들과 몇 번 병문안 갔지만

너가 그렇게 빨리 우리 곁을 떠날 줄 몰랐다.

나는 너와 부산고등학교도 긴 세월 같이 추억을 쌓았지!!

라이락꽃 향기 추억사진을 꺼내놓고 교복입은 어슬픈 사진 보면서

추억에 잠기면서 눈물을 글썽인다.

우리 모두 얼마안있어 같은곳을 찾아 만날 때까지 편안히 쉬고 있어??!!